



한덕수 국무총리, 「피초」 슬로바키아 총리와 면담

- 양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환영 -

- 인프라·방산·에너지 등 분야에서의 협력 점검 -

- 한덕수 국무총리는 9월 30일(월)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식 방한 중인 「로베르트 피초(Robert Fico)」 슬로바키아 총리와 면담을 갖고 △양국 관계 △경제협력 △지역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.
- 한 총리는 이번 피초 총리의 공식 방한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을 환영하였으며, 피초 총리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관계가 모든 분야에서 더욱 심화되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.
- 피초 총리는 한국의 140여 개 기업이 슬로바키아에 진출하여 슬로바키아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며, 한 총리는 양국 경제협력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.
- 양측은 양국이 공유하는 보편적 가치를 기초로 인프라, 방산, 에너지 등 중요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.
 - 특히 피초 총리는 원자력 분야 양국 간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였으며, 한 총리는 원자력 및 무탄소에너지(CFE) 등 분야에 있어 양국 간 상호 호혜적인 방식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.

- 한 총리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러북 간 불법적 군사협력이 한반도 뿐 아니라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의 안보를 크게 위협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,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슬로바키아측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하였다.
- 피초 총리는 러북 밀착에 대한 우려에 공감하면서, 우리의 「통일 독트린」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하였다.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	책임자	팀 장 김진환	02-2100-2109
	외교안보정책관실	담당자	사무관 임채영	02-2100-2132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